

# 간호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최명희<sup>1</sup> · 김주현<sup>2</sup> · 남은숙<sup>2</sup> · 이용미<sup>2</sup> · 황주희<sup>1</sup> · 이미경<sup>3</sup> · 윤성자<sup>4</sup> · 박현주<sup>2</sup>

강원대학교 대학원 춘천캠퍼스 간호학과<sup>1</sup>,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간호학과<sup>2</sup>, 한중대학교 간호학과<sup>3</sup>, 송호대학교 간호학과<sup>4</sup>

## Factors Affecting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Students

Choe, Myeong Hui<sup>1</sup> · Kim, Joo Hyun<sup>2</sup> · Nam, Eun Sook<sup>2</sup> · Lee, Yong Mi<sup>2</sup> · Hwang, Ju Hee<sup>1</sup> · Lee, Mi Kyung<sup>3</sup> · Yoon, Sung Ja<sup>4</sup> · Park, Hyunju<sup>2</sup>

<sup>1</sup>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Nursing, Chuncheon Campu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Chuncheon Campu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sup>3</sup>College of Nursing, Hanzhong University, Donghae

<sup>4</sup>Department of Nursing, Songho College, Hoenseong,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at factors are affecting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students. **Methods:** Subjects were 463 students from two 3-year and two 4-year colleges of nursing in K-Province in Korea. Data was collected from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t-test, ANOVA, Pearson's and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with dummy variables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of data. **Results:** Job-seeking stres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school system ( $t=2.76, p=.006$ ), family economic status ( $F=3.40, p=.005$ ), characteristics ( $t=1.99, p=.047$ ), academic achievement ( $F=6.54, p=.002$ ), current weight control status ( $t=2.23, p=.026$ ), times of cosmetic surgery ( $r=.11, p=.022$ ), self-esteem ( $r=-.47, p<.001$ ) and appearance stress ( $r=.40, p<.001$ ). However, after controlling for general characteristics, self-esteem, and perceived appearance stress, job-seeking stres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grade (1st vs 3rd,  $\beta=0.163, p<.001$ ), academic achievement (low vs. high,  $\beta=-0.121, p=.0321$ ), self-esteem ( $\beta=-0.224, p<.001$ ), and appearance stress ( $\beta=0.099, p<.001$ ). The explanation power of self-esteem on job-seeking stress was greater compared with that of appearance stress. **Conclusion:**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for nursing students to develop intervention program aimed at reducing job-seeking stress, and it would be effective to focus on improving self-esteem for them.

**Key Words:** Nursing students, Appearance stress, Job-seeking stress, Self-esteem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통계청의 '2010년 2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20대 실업률은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이며, 그 수는 전체 실업자의 절반이 넘는 수치이고, 청년 5명 중 1명이 직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Statics Korea, 2010) 청년들의 취업

이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학생 10명 중 9명이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조사되었고, Kim (2012)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의 취업불안이 100점을 만점으로 하였을 때 평균 75.6±22.4점으로 높게 나타나, 취업준비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두려움과 불안 같은 심리 사회적 어려움까지 초래되는 극심한 취업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Cho, 2013).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경기침체 및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취업의 문이 좁

**주요어:** 간호대학생, 외모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 자존감

**Corresponding author:** Park, Hyunju

Department of Nurs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1 Gangwondaehak-gil, Chuncheon 200-701, Korea.

Tel: +82-33-250-8879, Fax: +82-33-242-8840, E-mail: hpark@kangwon.ac.kr

Received: Mar 29, 2015 / Revised: Apr 23, 2015 / Accepted: Apr 26, 2015

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어려운 사회 환경은 생애 첫 취업을 앞둔 대학생에게 과도한 경쟁과 함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따라서 많은 수의 대학생들이 취업 준비과정에서 스트레스, 즉 취업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들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중에서 취업 스트레스의 비중은 가장 높으며(Kang, 2003), 이들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취업 스트레스는 불안, 분노, 우울감 등을 경험하게 하여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ark, Kim, & Jung, 2009). 또한 Cho (2013)의 연구에서는 행복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취업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사회 상황과 취업 스트레스가 대학생에게 신체적,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취업 스트레스는 간호대학생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매년 1만 5천명의 간호사가 배출되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에 간호학과가 신설되어 간호대학 졸업생의 수가 최근 놀랄 만큼 증가하였고(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2012). 그동안 취업에 용이하다고 여겨지던 간호학과 학생들도 취업을 위해서는 학업 성적을 올리기 위한 노력뿐 아니라 다양한 스펙을 갖추어 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취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스트레스를 연구한 논문은 1개 찾을 수 있었으며, 이 논문에서는 3년제 간호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반적 특성과 BMI, 체형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여 살펴보았다(Hwang, 2012). 이외 타 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외모만족도가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Kim & Kim, 2014), 대부분은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가정경제수준) 및 자아존중감 및 자아효능감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Byen, Yoon, & Kim, 2014; Shin & Cho, 2013; Shin, 2012). 이 중 자아존중감의 경우 많은 연구에서 취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yen et al., 2014; Choi & Lee, 2013; Shin & Cho, 2013). 따라서 4년제 간호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볼 때,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진행할 때 많은 선행연구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자아존중감을 가능한 한 포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우리 사회에서 취업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은 외모와 취업과의 관련성이다. Kim과 Kim (2005)의 연구에서 고용주가 여성인력을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외모'가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남학생 역시 동일한 스펙을 갖추었다면 외모가 취업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생각하여, 취업준비자들은 헬스, 피부 관리, 미용성형 등을 통한 외모관리에 열중하며, 외모관리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멋이 아니라 생활의 필수요소로 외모가 인생의 성공에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다(Yoon, 2007).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인식과 취업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간호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더더욱 찾기 어렵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Cho 등(2013)와 Kim과 Kim (2014)의 연구를 찾을 수 있는데, 전자에서는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후자의 연구에서는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 역시 외모에 대한 인식이 취업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외모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효율적 예방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외모 스트레스 인지 및 취업 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과 외모 스트레스 인지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한다.
-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과 외모 스트레스 및 취업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외모 스트레스를 모두 포함한 상태에서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외모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간호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된 단면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우리나라 K-도에 위치한 서로 다른 도시에 소재하는 2개의 3년제 간호학과와 2개의 4년제 간호학부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서면 동의한 자를 편의표출하였다.

연구의 검정력 확보를 위해 G\*Power 3.1.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수를 산출하였을 때, 회귀분석을 기준으로 효과크기 .02 (작은 크기), 유의수준( $\alpha$ ) .05, 검정력(1- $\beta$ ) .80, 예측변수 10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 표본크기는 394명이었다. 여기에 약 30% 정도의 무응답률을 고려하여 512명을 설문대상자로 하였고, 이중 47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최종적으로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를 7부 제외하여, 총 463부를 최종분석에 포함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6일까지였고, 자료수집을 위해 각 대학의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자료수집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승인을 얻었다. 학생들에게는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자기기입식(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으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10~15분 소요되었다.

### 3.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았고, 대상자에 대한 위협성은 전혀 없었다. 연구대상자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 내용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자의 신분을 밝힌 동의서를 나누어 주어 연구참여를 서면으로 허락한 자만을 연구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설문지는 익명으로 조사한다는 점과 대상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 4.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지는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외모 스트레스와 취업 스트레스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학제, 학년, 가족경제상태, 주거형태, 키, 몸무게, 성격, 학업 성적, 현재 체중조절 여부, 성형횟수를 포함하며, 자가보고 형식으로 조사하였다. 연령은 만 나이로 기입하게 하였고, 가족 경제 상태는 월 소득으로 150만원 미만, 150~300만원, 300만원 초과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성격은 내향적 성격과 외향적 성격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고, 학업 성적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현재 자신의 성적 상태를 상, 중, 하로 분류하여 선택하게 하였으며, BMI는 자가보고로 조사된 키와 몸무게를 근거로 산출하였고, WHO가 제시한 아시아인의 비만기준인 23을 기준으로 정상(18.5~22.9 kg/m<sup>2</sup>), 과체중(23~24.9 kg/m<sup>2</sup>), 비만(25 kg/m<sup>2</sup> 이상)으로 분류하였다(WHO, 2004)

####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Rosenberg (1965)에 의하면, 자신에 대해 스스로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자신을 얼마나 가치로운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어(Byen et al., 2014; Choi & Lee, 2013; Shin & Cho, 2013),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을 공변량으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Rosenberg가 개발하고 Cho (2012)가 수정·보완한 총 20 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로 측정된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ho (2012)의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76으로 조사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 3) 외모 스트레스

외모 스트레스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생기는 긴장상태로, 본 연구에서는 Yang (1993)이 개발한 외모 스트레스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이 도구는 총 14 문항으로 구성되고, Likert식 5점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Yang (1993)이 개발했을 당시 .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4로 조사되었다.

#### 4) 취업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란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로(Shin, 2012), 본 연구에서는 Hwang (1998)이 개발한 ‘취업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이 도구는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코넬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Cornell Medical Index: CMI)을 토대로 개발되었으며, 총 72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4개의 하위영역은 학업 스트레스 13문항, 성격 스트레스 30문항, 학교환경 스트레스 16문항, 가족환경 스트레스 13문항이다. Likert식 4점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Ryu (201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역시 .96으로 나타났다.

####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외모 스트레스 및 취업 스트레스의 수준 파악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및 외모 스트레스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 ANOVA를 실시하였고,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및 외모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 사이에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Pearson correlation과 Spearman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취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더미변수를 이용한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ith dummy variables)을 실시하였다.

###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외모 스트레스 및 취업 스트레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만 20.8±1.78세였고, 성별로 나누어보면 남자는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Age (year)		20.8±1.8
Gender	Male	92 (19.9)
	Female	371 (80.1)
School system	3 years	165 (35.6)
	4 years	298 (64.4)
Grade	1st	129 (27.9)
	2nd	188 (40.6)
	3rd	103 (22.2)
	4th	43 (9.3)
Family economic status (monthly income)	< 1.5 million won	54 (12.4)
	1.5 to 3 million won	157 (36.1)
	> 3 million won	224 (51.5)
Residential types	Home	115 (24.9)
	Rented room	108 (23.4)
	Dorm	233 (50.5)
	Others	5 (1.1)
Height		164.0±7.4
Weight		56.7±10.1
BMI	Normal	353 (76.2)
	Overweight	54 (11.7)
	Obesity	27 (5.8)
Characteristic	Introverted	252 (54.5)
	Extroverted	210 (45.5)
Academic achievement	High	57 (12.4)
	Middle	327 (70.9)
	Low	77 (16.7)
Current weight control	Yes	171 (37.1)
	No	290 (63.9)
Cosmetic surgery times		0.2±0.4
Self-esteem		3.3±0.6
Appearance stress		2.3±0.7
Job-seeking stress		1.9±0.4

92명(19.9%), 여자는 371명(80.1%)이었다. 학제에 따른 특성에서 3년제는 165명(35.6%), 4년제는 298명(64.4%)이며, 학년에 따른 구분으로는 1학년은 129명(27.9%), 2학년은 188명(40.6%), 3학년은 103명(22.2%), 4학년은 43명(9.3%)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경제 상태는 월 150만원 미만이 54명(12.4%), 월 150~300만원은 157명(36.1%), 월 300만원 초과는 224명(51.5%)이었으며, 거주 형태에서 자택은 115명(24.9%), 자취는 108명(23.4%), 기숙사는 233명(50.5%), 기타는 5명(1.1%)이었다.



대상자들의 평균 키는  $164.0 \pm 7.4$  cm, 평균 몸무게는  $56.7 \pm 10.1$  kg이었고, BMI로 구분하였을 때 정상( $18.5 \sim 22.9$  kg/m<sup>2</sup>)은 353명(76.2%), 과체중( $23 \sim 24.9$  kg/m<sup>2</sup>)은 54명(11.7%), 비만( $25$  kg/m<sup>2</sup> 이상)은 27명(5.8%)으로 나타났다. 내향적인 성격이 252명(54.5%), 외향적인 성격은 210명(45.5%)이며, 학업 성적이 '상'인 대상자는 57명(12.4%), '중'은 327명(70.9%), '하'는 77명(16.7%)으로 나타났다. 현재 체중 조절을 하는 대상자는 171명(37.1%), 현재 하지 않는 대상자는 290명(63.9%)이었고, 대상자들의 평균 성형 히트는  $0.2 \pm 0.4$ 회로 조사되었다.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평균  $3.3 \pm 0.6$ 점, 외모 스트레스는 평균  $2.3 \pm 0.7$ 점이었으며, 취업 스트레스 점수는  $1.9 \pm 0.4$ 점으로 나타났다.

## 2.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과 외모 스트레스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의 차이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과 외모 스트레스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이 중 변수별 취업 스트레스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학제( $t=2.76, p=.006$ ), 가족경제상태( $F=3.40, p=.005$ ), 성격( $t=1.99, p=.047$ ), 학업성적( $F=6.54, p=.002$ ), 현재 체중조절여부( $t=2.23, p=.026$ ), 성형히트수( $r=.11, p=.022$ ), 자아존중감( $r=-.47, p<.001$ ), 외모 스트레스( $r=.40, p<.001$ )로 나타났다. 이외 연령, 성별, 학년, 거주형태, 키, 몸무게, BMI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의 차이는 없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남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점수는 평균  $1.88 \pm 0.40$ 점, 여학생은 평균  $1.94 \pm 0.36$ 점으로 여학생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학제에 따라서는 3년제는 평균  $1.99 \pm 0.40$ 점, 4년제는 평균  $1.89 \pm 0.35$ 점으로 3년제 간호대 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점수가 더 높았다. 학년 별 취업 스트레스 평균 점수는 3학년이  $2.01 \pm 0.37$ 점, 4학년이  $1.90 \pm 0.35$ 점으로 3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상태에 따라서는 월 150만원 미만은 평균  $1.98 \pm 0.38$ 점, 150~300만원이 평균  $1.93 \pm 0.35$ 점, 300만원 초과가 평균  $1.91 \pm 0.38$ 점으로 월소득이 적을수록 취업 스트레스 점수가 더 높았다. 거주형태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점수는 주택거주의 경우 평균  $1.90 \pm 0.35$ 점, 자취의 경우 평균  $1.93 \pm 0.38$ 점, 기숙사의 경우 평균  $1.95 \pm 0.37$ 점, 기타 평균  $1.89 \pm 0.34$ 점으로 기숙사 거주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다.

BMI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점수는 정상의 경우 평균  $1.92 \pm 0.37$ 점, 과체중의 경우 평균  $1.95 \pm 0.37$ 점, 비만의 경우 평균  $1.95 \pm 0.33$ 점으로 정상체중에서 가장 낮았다. 내향적 성격

의 취업 스트레스 평균 점수는  $1.96 \pm 0.36$ 점, 외향적 성격은  $1.89 \pm 0.38$ 점으로 내향적인 경우 점수가 더 높았으며, 학업성적이 '상'인 경우 평균  $1.81 \pm 0.32$ 점, '중'인 경우 평균  $1.92 \pm 0.35$ 점, '하'인 경우 평균  $2.04 \pm 0.43$ 점으로 성적이 낮을수록 취업 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현재 체중조절 여부에 따라서는 체중조절 중인 경우 평균  $1.98 \pm 0.38$ 점, 아닌 경우 평균  $1.90 \pm 0.36$ 점으로 현재 체중조절을 하고 있는 경우 취업 스트레스가 더 높았다.

## 3.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외모 스트레스 및 취업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을 보정한 상태에서 외모 스트레스의 취업 스트레스 관련성을 살펴보기 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검정하기 위해 이들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외모 스트레스 및 취업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취업 스트레스와 상관관계를 보인 항목은 학제( $r=-.132, p=.005$ ), 학업성적( $r=.156, p=.001$ ), 현재 체중조절여부( $r=-.094, p=.045$ ), 성형히트수( $r=.107, p=.022$ ), 자아존중감( $r=-.472, p<.001$ )과 외모 스트레스( $r=.403, p<.001$ )로 조사되었다.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외모 스트레스 사이에 상관관계가 모두 0.8보다 작아 다중 공선성이 의심되지 않았다. 또한 연구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파악한 결과 공차한계값이 0.492 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은 1.017~2.035로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4와 같다.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과 외모 스트레스가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3개의 모델을 구축하여 살펴보았다. 일반적 특성에 포함된 변수는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 변수만을 포함하였다. Model I에서는 독립변수로 일반적 특성의 항목들을 포함하였고, Model II에서는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을, Model III에서는 Model II의 독립변수 항목들과 외모 스트레스를 포함하였다.

우선, Model I에서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은 학년, 성격, 학업성적, 성형히트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학년과 비교하여 3학년에서( $\beta=.101, p=.037$ ), 성

**Table 2.** Job-seeking Str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Self-esteem, and Appearance Stress

Variables	Categories	Job-seeking stress		
		M±SD	t or F or r	p
Age			-.01	.762
Gender	Male	1.88±0.40	-1.49	.136
	Female	1.94±0.36		
School system	3-years	1.99±0.40	2.76	.006
	4-years	1.89±0.35		
Grade	1st	1.93±0.34	2.51	.058
	2nd	1.89±0.38		
	3rd	2.01±0.37		
	4th	1.90±0.35		
Family economic status	< 1.5 million won	1.98±0.38	3.40	.005
	1.5 to 3 million won	1.93±0.35		
	> 3 million won	1.91±0.38		
Residential types	Home	1.90±0.35	0.43	.733
	Rented room	1.93±0.38		
	Dorm	1.95±0.37		
	Others	1.89±0.37		
Height			-.50	.283
Weight			-.03	.565
BMI	Normal	1.92±0.37	0.15	.864
	Overweight	1.95±0.37		
	Obesity	1.95±0.33		
Characteristic	Introverted	1.96±0.36	1.99	.047
	Extroverted	1.89±0.38		
Academic achievement	High	1.81±0.33	6.54	.002
	Middle	1.92±0.35		
	Low	2.04±0.43		
Current weight control	Yes	1.98±0.38	2.23	.026
	No	1.92±0.36		
Cosmetic surgery times			.11	.022
Self-esteem			-.47	< .001
Appearance stress			.40	< .001

형횡수가 많을수록( $\beta = .089, p = .021$ ) 취업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내향적인 성격과 비교하여 외향적인 성격에서( $\beta = -.068, p = .047$ ), 성적이 낮은 그룹보다 중간이거나 높은 그룹에서( $\beta = -.109, p = .018$ ;  $\beta = -.225, p < .001$ ) 취업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예측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 = 3.485, p < .001$ ), 설명력(Adj.  $R^2$ )은 .056으로 취업 스트레스 중 5.6%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Model II에서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년, 학업성적과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다. Model I과 마찬가지로 1학년에 비해 3학년이( $\beta = .161, p < .001$ ) 취업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성

적이 낮은 그룹보다 높은 그룹에서( $\beta = -.125, p = .030$ ) 유의하게 취업 스트레스가 낮았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beta = -.301, p < .001$ ) 나타났다. Model II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 = 13.548, p < .001$ ), 설명력(Adj.  $R^2$ )은 0.247로 취업 스트레스 중 24.7%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적 특성을 제외한 자아존중감은 취업 스트레스의 19.1%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Model III에서는 독립변수로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과 외모 스트레스를 포함하였다. 이중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odel II와 마찬가지로 학년, 학업성적, 자아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Variable	School system	Grade	Family economic status	Academic achievement	Characteristic	Current weight control	Cosmetic surgery times	Self-esteem	Appearance stress
Grade	.098 .035**	1							
Family economic status	.020 .683**	-.058 .227**	1						
Academic achievement	-.101 .030**	-.122 .009**	-.031 .522**	1					
Characteristic	.045 .331**	-.010 .835**	.127 .008**	.016 .740**	1				
Current weight control	.078 .093**	.068 .142**	-.073 .129**	-.042 .367**	-.117 .012**	1			
Cosmetic surgery times	-.075 .107**	.028 .546**	.125 .009**	.045 .331**	.093 .045**	-.110 .018**	1		
Self-esteem	.109 .019**	-.169 <.001**	.029 .552**	-.221 <.001**	.215 <.001**	.044 .348**	-.088 .059*	1	
Appearance stress	-.053 .254**	-.089 .055**	.032 .507**	.133 .004**	-.160 .001**	-.109 .019**	.118 .011*	-.618 <.001*	1
Job-seeking stress	-.132 .005**	.054 .248**	-.054 .263**	.156 .001**	-.089 .056**	-.094 .045**	.107 .022*	-.472 <.001*	.403 <.001*

\**p* from Pearson correlation; \*\**p* from Spearman correlation.

존중감이 유의하였으며, 또한 외모 스트레스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에 비해 3학년이( $\beta = .163, p < .001$ ) 취업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성적이 낮은 그룹보다 높은 그룹에서( $\beta = -.121, p = .032$ ) 유의하게 취업 스트레스가 낮았고,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beta = -.224, p < .001$ ) 나타났다. 또한 외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도 높아지는 것으로( $\beta = .099, p < .001$ ) 나타났다. Model III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 = 13.925, p < .001$ ), 설명력(Adj.  $R^2$ )은 .268로 취업 스트레스 중 26.8%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외모 스트레스는 취업 스트레스의 2.1%를 설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외모 스트레스와 취업 스트레스 인지 정도를 파악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외모 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포함한 상태에서 취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외모 스트레스 점수는 5점 만점

에 평균  $2.3 \pm 0.7$ 점, 취업 스트레스는 4점 만점에  $1.9 \pm 0.4$ 점이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 일반 여대생의 외모 스트레스 점수는 평균  $2.45 \pm 0.74$ 점(Chang & Sohn, 2014), 평균 2.44~2.60점(Jun & Lee, 2014)으로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의 외모 스트레스 점수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치였다. 또한 같은 도구로 측정한 보건계열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는 평균 2.01점, 비보건계열 대학생은 2.13점(Ryu, 2011), 일반 대학생 졸업반에서 1.9점(Park & Park, 2005), 일반 대학생에서 2.43점(Shin & Cho, 2013)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에 포함된 간호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점수는 일반 대학생에 비해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전공이나 직종에 따라 취업률이 다르며, 또한 외모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모 스트레스 인지가 취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외모 스트레스 인지가 취업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조사한 연구를 찾기 어려우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다만 외모와 관련된 유사한 변수를 이용하여 조사할 결과에 따르면, 치위생학과 재학생에서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취업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았다는 결과(Kim & Kim, 2014)와는 유사한 결과이며, 일반 여대생에서 면접 시 외모의

Table 4. Factors Affecting Job-seeking Stress

Variables	Categories	Model I (Adj. R <sup>2</sup> =.056)				Model II (Adj. R <sup>2</sup> =.247)				Model III (Adj. R <sup>2</sup> =.268)			
		$\beta$	SE	t	p	$\beta$	SE	t	p	$\beta$	SE	t	p
School system	3-years 4-years	-.061	.037	-1.638	.102	-.039	.033	-1.176	.240	-.041	.033	-1.243	.215
Grade	1st	-.003	.042	-0.063	.950	.039	.038	1.032	.303	.026	.038	0.681	.496
	2nd	.101	.048	2.096	.037	.161	.043	3.724	<.001	.163	.043	3.826	<.001
	3rd	.039	.066	0.588	.557	.110	.059	1.848	.065	.108	.059	1.853	.065
	4th												
Family economic status	< 150	-.045	.049	-0.922	.357	-.036	.044	-0.830	.407	-.049	.043	-1.128	.260
	150~300	-.059	.047	-1.238	.216	-.038	.042	-0.891	.373	-.049	.042	-1.161	.246
	> 300												
Characteristic	Introverted Extroverted	-.068	.034	-1.995	.047	.003	.031	0.084	.933	.008	.031	0.255	.799
Academic achievement	High	-.225	.063	-3.558	<.001	-.125	.057	-2.179	.030	-.121	.056	-2.150	.032
	Middle	-.109	.046	-2.374	.018	-.042	.041	-1.007	.314	-.038	.041	-0.932	.352
	Low												
Current weight control	No Yes	.003	.002	1.537	.125	.003	.002	1.588	.113	.003	.002	1.428	.154
Cosmetic surgery times		.089	.038	2.312	.021	.047	.034	1.369	.172	.037	.034	1.096	.274
Self-esteem						-.301	.028	-10.702	<.001	-.224	.035	-6.497	<.001
Appearance stress										.099	.027	3.715	<.001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 취업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결과(Cho et al., 2013)와도 비슷한 결과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외모 스트레스 인지가 취업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2.1%에 불과하였으며, 오히려 자아존중감의 취업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이 24.7%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외모 스트레스보다 더 크고, 모든 독립변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아존중감은 취업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관련 연구(Park, Bae, & Jeong, 2002)에 의해 지지 될 수 있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취업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며,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키며, 또한 정서적인 안정을 마련해주어 취업준비를 원활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자아존중감의 향상은 취업 스트레스 극복에 필수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도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대한 중재방법으로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는데(Choi, 2013; Choi & Lee, 2013; Shin, 2012; Shin & Cho, 2013), 이는 간호대학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지 혹은 부정적으로 보는지에 관한 자신의 가치에 대한 총체적 평가로써(Rosen-

berg, 1965), 자신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는데, 삶의 질과도 관련성이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가지며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Yu, 2009). 이런 점에서 자아존중감은 취업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Shin, 2012),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취업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 일반적 특성별로 취업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을 때, 학제, 가정경제수준, 성격, 학업성적, 현재 체중조절 여부, 성형횟수가 유의하였으나,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외모 스트레스를 모두 고려하였을 때, 일반적 특성 중 간호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과 학업성적으로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1학년과 비교하여 3학년에서 취업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1학년과 4학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의 선행연구에서는 4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Byun et al., 2014; Shin & Cho, 2013), 본 연구에서는 3학년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본 조사의 기간이 11~12월로 간호대학생 4학년의 경우 이미 취업이 거의 완료된 시점이어서 4학년을 제



외한 가장 고학년인 3학년에서 취업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성적이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취업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선행연구(Shin, 201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외모의 객관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BMI에 따른 비만의 정도가 취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며, 이는 Hwang (2012)의 결과와도 비슷한 결과이다. 즉, 외모의 객관적 지표보다는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외모 스트레스가 취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자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다는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취업 스트레스가 유발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 프로그램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자존감이 자신의 외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VanBoven & Espelage, 2006), 자존감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중재 프로그램의 적용이 외모 스트레스의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외모 스트레스 인지가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이며, 연구결과, 외모 스트레스의 인지가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외모를 중요시하는 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좋은 외모는 개인의 다른 특징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후광효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Brewis, Hruschka, & Wutich, 2011),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본인의 외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즉, 외모 스트레스를 인지하게 되면 취업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취업 스트레스를 대학 생활 중 겪게 되면, 신체적, 심리적 평형상태에 균형이 파괴되고, 이는 개인의 건강과도 연결이 되므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Lin, Probst, & Hsu, 2010). 따라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모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어렵지만, 자아존중감이 취업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면 취업 스트레스의 일정부분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간호대학생들에게 취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적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중재를 적용할 때, 고학년과 학업성적이 낮은 그룹은 취업 스트레스를 인지하는데 있어 고위험 군

이므로 이들을 우선적으로 중재 대상에 고려해 넣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3년제와 4년제 간호대학 2개씩을 편의 추출한 연구이므로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간호대학 학생들로 확대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며, 단면연구이므로 원인과 결과를 확정짓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4년제 간호학과 학생들을 포함하여 취업 스트레스를 조사한 첫 번째 연구이므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2개의 3년제 간호학과와 2개의 4년제 간호학과 학생 463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간호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는 일반 대학생들과 비교하여 약간 낮거나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외모 스트레스 인지는 취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그 설명력은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아존중감이 취업 스트레스에 더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외모 스트레스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을 때, 일반적 특성 중에는 학년과 성적이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감소를 목표로 하는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고학년과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취업 스트레스에 취약한 군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REFERENCES

- Baek, S. H. (2013, March 8). *9 people out of 10 college students "receive job stress."*, from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1406>
- Brewis, A. A., Hruschka, D. J., & Wutich, A. (2011). Vulnerability to fat-stigma in women's everyday relationships. *Social Science & Medicine*, 73(4), 491-497.
- Byen, E. K., Yoon, S. J., & Kim, K. H. (2014). The factors influencing o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3(3), 146-153. <http://dx.doi.org/10.5807/kjohn.2014.23.3.146>
- Chang, H. K., & Sohn, J. N. (2014). Influence of appearance stress, ego-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s and depression on eating attitude in women undergraduate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21(3), 235-242. <http://dx.doi.org/10.7739/jkafn.2014.21.3.235>

- Cho, H. C. (2013). A study on the stress involved in preparing for employment on college student's happiness: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Studies on Korean Youth*, 24(1), 157-184.
- Cho, M. K., Choi, E. J., Lee, J. W., Lee, Y. N., & Chae, J. Y. (2013). Correlations in appearance, job-seeking stress and job-seeking anxiety in undergraduates according to gender differences.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10(2), 141-150.
- Cho, Y. S. (2012). *ADHD symptoms, self-esteem and depression of delinquent adolesc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Choi, M. J. (201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ical college students' job seeking stress and self-esteem - With focus on social welfare students. *Korean Academy of Practical Human Welfare*, 11, 169-186.
- Choi, S. H., & Lee, H. Y. (2013). Affecting factors in unemployment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focused on physical symptoms, depression, anxiety and self-esteem. *Korea Contents Association Journal*, 13(12), 808-816.  
<http://dx.doi.org/10.5392/JKCA.2013.13.12.808>
- Hwang, R. I. (2012).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stress among colleg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2), 215-226.  
<http://dx.doi.org/10.5932/JKPHN.2012.26.2.215>
- Hwang, S. W. (1998).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 Jun, J. H., & Lee, M. S. (2014). Media involvement on appearance evaluation, appearance stress,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8(4), 518-527.  
<http://dx.doi.org/10.5850/JKSCT.2014.38.4.518>
- Kang, B. M. (2003). *The causes of psychosocial stress and way of coping with stress on university students-Focused on difference of gender, grade level, maj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Kim, B. H., & Kim, J. A. (2005). Attitude and preparation toward employment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1), 39-51.
- Kim, S. J., & Kim, H. H. (2014). Impact of appearance satisfaction and ego-resilience on employment stress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4(1), 75-84.  
<http://dx.doi.org/10.13065/jksdh.2014.14.01.75>
-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2012). Brief Statistics on Korean Education from <http://kess.chedi.re.kr/index>
- Lin, H. S., Probst, J. C., & Hsu, Y. C. (2010). Depression among female psychiatric nurses in southern Taiwan: main and moderating effects of job stress, coping behavior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9(15-16), 2342-2354.
- Park, H. S., Bae, Y. J., & Jeong, S. Y. (2002). A study on self-esteem, self-efficacy, coping methods, and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1(4), 621-631.
- Park, K. R., & Park, H. R. (2005). A study on the employment stress in senior-yea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19(2), 328-338.
- Park, M. J., Kim, J. H., & Jung, M. S. (2009). Career counseling: A qualitative study on the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for preparing employmen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0(1), 417-435.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yu, B. M. (2011). *The relationship of employment stress,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mental health: Focused on health and non-health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 Shin, K. S., & Cho, I. J. (2013). The effects of job-seeking skills,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n job-seeking stress in college students. *Social Science Research*, 29(3), 143-160.
- Shin, S. H. (2012).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and self-esteem of health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2(3), 217-225.
- Statics Korea. (2010). Press Collections 2009-2010 (Employment Trends) From <http://kostat.go.kr>
- VanBoven, M., & Espelage, L. (2006). Depressive symptoms, coping strategies, and disordered eating among college wome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4(3), 341-225.
- WHO Expert Consultation. (2004). Appropriate body mass index for Asian populations and its implications for policy and intervention strategies. *Lancet*, 363, 157-163.
- Yang, K. M. (1993). *The link between body-esteem and self-esteem during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 Yoon, S. Y. (2007). *A study on cognition and attitude toward appearance management in college women-focused on hair, skin care, makeup, and cosmetic surger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 Yu, E. Y. (2009). Self-esteem and stress-coping strategies of the colleg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The Korea Contents Society*, 9(6), 225-236.